



# “소통하고 싶어요”

‘한국 수어의 날’ 맞아 들어 본 광주·전남 농아인들의 현실은

1만800여명 “외국에 사는 것 같다”...통역사 있어야 일상생활 가능  
광주에 통역사 10여명 그쳐...특수학교·교육기관 등 인프라도 부족

한국 수어(手語)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공용어가 된지 올해로 8년이 됐지만 광주지역 농아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

수어를 쓰는 농아인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등 급작스런 일이 닥치면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이들은 수어 통역사를 거쳐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광주시에는 10여명의 통역사만이 활동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농아인(聾啞人·듣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1만868명(청각장애 1만249명, 언어장애 619명)에 달한다.

한국수어의 날(2월3일)을 맞아 광주일보취재진이 광주 동구농아인쉼터에서 만난 농아인들은 “광주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외국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교육기관을 비롯해 관공서나 대형마트, 병원, 백화점, 시장, 카페, 식당 등 어디를 가든지 수어를 통한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2020년 ‘한국수어의 날’(2월 3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수어는 여전히 외면받는 언어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어통역사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수어통역사는 총 10명이며 5개 농아인 쉼터에 1~2명의 통역사들이 배치돼 있다. 통역사 1명당 농아인 700여명 꼴로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수어 통역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4살 때 심한 고열 때문에 후천적으로 농아인이 된 정주영(여·49)씨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수어통역사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해 글씨를 쓰며 민원을 해결해야 해 힘들었다”며 “살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미리 통역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글씨를 쓰거나 몸짓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프거나 교통사고 등 예상



3일 광주동구농아인쉼터에서 만난 (왼쪽부터)문성학, 조점래, 정주영씨가 수화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

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농아인들은 억울하거나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초기에 제대로 된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경찰조사에서 피해를 자세히 진술하지 못해 억울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농아인인 조점래(60)씨는 “지인들의 경우 경찰



서에서 통역사를 거쳐 진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던 사례가 종종 있다”며 “경찰, 병원, 병원 등 사실과 다른 정보가 전해질 수 있는 민감한 경우는 전문통역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어를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교육기관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후천 장애를 갖게 된 문성학(36)씨는 “현재 광주에는 농아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없어 수어를 전



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현재 광주지역 특수학교는 수화전문 교육이 없는 점이 문제다”면서 “특히 공립학교라는 점에서 수어통역 가능한 교사가 있더라도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면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강추위 없고 눈도 적고...올 겨울 벌써 끝?

평년 대비 1~2도 높아 따뜻...강우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절기상 봄에 접어드는 입춘(立春·4일)이 지나면서 올 겨울이 강력한 한파나 큰 눈이 없는 계절로 기록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에는 평년 대비 1~2도 가량 높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은 평균기온 5.3도로 평년(3.9도)보다 1.4도 높았으며, 1년 중 가장 추운 달인 지난 1월에도 평균기온은 3.0도로 평년(1.0도)보다 2도 높았다.

눈도 적게 내렸다. 기상청에 기록된 이번 겨울 광주 12월 최심적설(하루 동안 최대 내린 눈

의 양)은 11.0cm, 1월은 10.6cm였다.

지난 겨울(2022년 12월~2023년 2월)에는 12월 한 달에만 최심적설 40.0cm에 달하는 눈 폭탄이 쏟아졌던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대신 강우량은 2023년 12월~2024년 두 달 동안 111.3mm를 찍었다. 지난 겨울 같은 기간 57.4mm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았다.

‘따뜻한 겨울’의 주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이 꼽힌다.

엘니뇨는 태평양 동쪽 적도 인근 바다인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에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태평양 한가운데 수온이 높아져 엘니뇨가 발생하면 필리핀해 부근 상층에서 저기압성 순환이 생기고, 이 순환으로부터 한반도 인근에 따뜻한 공기가 밀려드는 식이다.

입춘이 지난 이후 2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이달 광주·전남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5~11일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12일부터 3월 3일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코레일 8~12일 전라선 귀성 열차 증편

코레일 전남본부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기간 전라선(전북 익산역~여수엑스포역)에서 운행하는 열차 수를 늘린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오는 8~12일 귀성객을 위해

전라선 일반열차 매일 ITX-마을 1편, 무궁화호 2편을 추가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ITX-마을은 하루 2회씩 총 10회를 추가 운행하며, 무궁화호는 하루 4회씩 총 20회를 늘린다.

KTX는 평일에도 하루 4회씩 추가 운행해 주말과 같은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이다.

코레일 전남본부는 연휴 동안 코레일 본사 교통대책본부와 연계한 전남본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철도 시설물 및 역사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승객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 자율형 공립고 5곳 추천 확정

일고·광고·상일여고·수완고·전남고

광주지역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 추천 대상학교가 5곳으로 정해졌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에서 자공고 2.0 지정 추천 대상학교 5곳을 선정했다. 광주 제일고와 광주고, 상일여고 등 기존 자공고 3개 학교와 수완고, 전남고가 신규 지정을 신청해 5곳 모두 추천 대상학교로 확정됐다.

시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교육부에 추천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면 광주 제일고와 광주고, 상일여고는 3월부터 자공고로 재지정돼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수완고와 전남고는 9월부터 자공고로 운영된다.

자공고는 2009년에 도입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맞서 공립 고교에서도 수업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됐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자공고와 자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공고 2.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공고에 학교당 학교운영비 1억원

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공고는 학사운영과 교과 운영, 교사 활동 등에서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 형태다.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우선(선지망) 선발한다. 교장을 공모하고 우수교원 초빙도 가능하고 일정 부분 자율적 교과편성도 가능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공교육에서 인재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5곳 학교가 자공고 지정을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공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핵심 과제와도 맞물려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체제다.

공공적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우수 인재들이 소위 ‘인 서울’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일자리를 잡아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